

IV. 결론 및 시사점

1. 아베노믹스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단기적으로는 원/엔 환율이 하락하여 수출 부진과 경상수지 악화 등 국내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 내수 시장의 활성화로 한·일 간 무역거래가 증가하여 국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2. 최경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은 크게 ① 내수활성화, ② 민생안정, ③ 경제혁신으로 구성됨 (표 IV-1 참조).
- 내수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펼치는 한편, 가계소득과 기업 소득 선순환을 통한 소비 및 투자여건 개선, 주택시장 정상화, 리스크 관리 강화 정책을 제시함.
- 민생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청년 및 여성 등 일자리 창출, 노사정 대화 복원 추진, 소상공인 지원, 서민생활 안정을 제안함.
- 경제혁신을 위해 강도 높은 공공부문 개혁, 규제 개혁, 유망서비스업 육성,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경제민주화 추진, 해외진출 활성화, 농업의 미래 산업화 추진을 제시함.

3. 아베노믹스와 최경환 새 경제팀의 비교

■ 전체적인 정책방향은 유사하게 보이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임.

■ 유사점

- 경제정책발표 또는 시행 초반 금융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¹⁰⁾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 단기적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산업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대함.

■ 차이점

- 아베노믹스는 ‘경제재건’에 집중한 반면, 최경환 새 경제팀은 ‘내수 활성화’와 ‘경기부양’뿐만 아니라 ‘민생안정’이라는 정부의 복지제공 기능도 함께 강조함.
- 아베노믹스와 최경환 새 경제팀은 거시정책목표의 구체화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임.
 - 아베노믹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집행이 용이하고 시장과의 소통이 원활하였음.
 - 최경환 새 경제팀의 거시정책목표는 물가안정 유지와 경기회복의 공고화로 구체적인 정책목표는 제시하지 않음.

10) 최경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발표 이후로 KOSPI는 연중 최고치를 갱신함.

- (통화정책) 아베노믹스는 제로금리와 더불어 양적·질적 완화 통화정책을 시행했지만, 최경환 새 경제팀은 기준금리 인하 및 양적완화 통화정책 등의 과감한 정책 수단에 대한 내용은 없음.
- (재정정책) 아베노믹스는 아베 총리 취임 직후 13조 1000억 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최경환 새 경제팀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없이 41조 원을 재정, 금융에 투입하기로 함.
- (산업구조개혁정책) 아베노믹스는 고용·농업·의료 분야의 구조개혁이 중심이지만, 최경환의 새 경제팀은 공공부문 개혁과 함께 고용·서비스업 분야의 개혁에 초점을 맞춤.

4. 아베노믹스가 최경환 새 경제팀에게 주는 시사점

- 첫째, 거시정책목표를 구체화하여 정책의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제시하여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할 것임.
 - 정책목표의 구체화는 경제정책의 투명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정책목표가 불투명한 경우, 경제주체자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아 현행 보수적인 기조(소비 및 투자의 심리위축)를 유지하기 때문에, 거시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거시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수단도 구체화해야 함.
 - 또한 최경환 새 경제팀의 거시정책에는 중장기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time-consistency)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큼.
 - 최경환 새 경제팀의 거시정책은 올해 하반기와 2015년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그 이후의 거시정책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경제주체자로 하여금 정책기조에 대한 신뢰성과 평판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둘째, 효과적인 거시정책과 동시에 규제완화와 구조조정 등의 산업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 실질 GDP 성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은 생산성 제고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음.
 - 실질 GDP 성장은 노동인구 증가와 생산성 증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노동인구가 정체되어 있음.
- 따라서 국가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산업구조 개혁정책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함.
 - 아베노믹스 실행 초기 금융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지만, 산업구조개혁정책이 제한적이고 거시정책에 비해 시행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일본 경제의 회복세 지속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이 증가함.

표 IV-1 최근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정책 비교

아베노믹스	구분	근헤노믹스	최경환 새 경제팀
평균 명목GDP 성장률 3%	정책목표	대한민국 대도약을 통한 '국민행복시대' 구현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
① 통화정책 : 양적·질적 완화 ② 재정정책 : 재정지출 확대 ③ 산업구조개혁정책 : 규제개혁과 대외개방	정책수단	① 기초가 튼튼한 경제 - 공공부문 개혁 -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 - 사회안전망 확충 ② 역동적인 혁신경제 - 창조경제 구현 - 미래대비 투자 - 해외진출 촉진 ③ 내수·수출 균형경제 - 내수(소비)기반 확대 - 투자여건 확충 -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① 내수활성화 - 확장적 거시정책 - 소비·투자여건 개선 - 주택시장 정상화 - 리스크관리 강화 ② 민생안정 - 비정규직 처우 개선 -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 - 소상공인 지원 - 서민생활 안정 ③ 경제혁신 - 공공부문 개혁 - 규제개혁 - 유망서비스업 육성 - 해외진출 활성화
제로금리, 양적·질적완화	통화정책	연준 테이퍼링과 공조 (인상기조) 13개월째 금리동결 (연 2.5%)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신용정책 확대
확장 흑자재정 전환 도모 13조 엔 규모의 추경 편성 공공투자 확대	재정정책	경기 불씨 꺼지면 확장 17조 원 추경 편성(2013년 5월)	재정 12조 원, 금융 29조 원 '15년 예산도 확장편성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 드는 세계 개편
법인세 인하 고용·농업·의료분야의 구조개혁 국제화 전략	규제개혁	공공부문 개혁 투자여건 확충 펀드를 통한 창업생태계 지원	공공부문 개혁 유망서비스업 육성 경제민주화 추진 해외진출 활성화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4. 7. 24) 참고.

저자약력

■ 임 준 환

Brow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금융전략실 실장)
(E-mail : pricing@kiri.or.kr)

■ 황 인 창

KAIST 경영공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금융전략실)
(E-mail : ichwang@kiri.or.kr)

■ 이 혜 은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금융전략실)
(E-mail : lhe@kiri.or.kr)

CEO Report 2014-0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발행일	2014년 10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 2999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
(☎3775-9076)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